



08-09 (통권 187호)  
2008.03.07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곡물재고율 저하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 우려
- 2월 소비자물가 3.6% 상승

## 경영 노트

- 불황기 성장을 견인한 비결

## 사회 트렌드

- 쿠퍼족의 연예 혁명

## 저널 브리프

-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떠는 미국

## 洗心錄

- 창의적인 인재와 리더

## □ 곡물재고율 저하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 우려

-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재고율이 기존 최저 수치(15.4%)를 밑도는 14%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곡물 수급 여건도 여의치 않아 그동안 급등세를 보여온 곡물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 2008년 곡물연도(2007.9~2008.8)말 기준으로 곡물 재고율이 14.6%로 2007년 곡물재고율인 16.5% 보다 낮고, 심지어는 1972~73년 곡물과 동 당시의 재고율인 15.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가운데 곡물재고율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곡물가격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재고율 저하는 곡물가격 상승을 촉발시켜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 □ 2월 소비자물가 3.6%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와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농수산물, 개인서비스 부문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6%,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 농산물 등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원유 가격과 곡물 가격의 급등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이러한 물가 상승은 고유가 등에 기인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의 양상을 띠고 있어 정책 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 한편 지난 1월 광의통화(M2)가 1,286조 4,000억 원(평잔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급증하는 등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물가 불안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불황기 성장을 견인한 비결\*

- (개요) 비즈니스위크는 경제 위기 시 최고 경영자의 지혜가 기업 성장의 돌파구가 되었던 4가지 사례를 소개함
  - 경기 침체기였던 2000~1년에도 미국 중소기업의 26%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했던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함
  
- (사례) 인센티브 강화, 고객 상황 배려, 세심한 관리, 기회 포착이 불황기 성장을 견인한 4가지 사례의 주요 내용임
  - (①인센티브 강화) 고급화상품 제조기업인 알키미는 '07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주문량이 감소하자 판매원들의 수당을 8%에서 13%로 올리고, 일정량 이상 구매 시 신제품을 증정하여 매출 증대를 달성함
  - (②고객 상황 배려) '05년 허리케인으로 미 경제 침체 시, 소프트웨어 업체인 PSC 인포그룹은 고객 결제가 평균 일주일 이상 연체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결제 날짜와 가격을 고객들과 협의해 신뢰를 얻음
  - (③세심한 관리) 레스토랑 운영업체인 호스피털리티 홀딩스는 '07년 연초 대비 15% 증가한 세탁비용의 원인이 식당 바닥을 깨끗한 식탁보로 닦는 직원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비용을 절감시킴
  - (④기회 포착) 인쇄업체인 퀴텀그래픽스는 2001년 9.11테러에 따른 경기하장으로 경쟁업체가 부진하자 경쟁업체의 고객목록을 입수, 자사의 선진 서비스를 홍보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함
  
- (시사점) 경제 침체기의 성장 기업들은 차별화된 고객관리와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한 조직정비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제고함
  - 고객 상황의 배려, 기회 포착은 불황기에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객 관리에서 발견한 경우임
  - 인센티브 강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세심한 관리는 강력한 조직정비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재무적 위험요소를 제거한 경우임

\*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2008.2.22)에 게재된 “불경기에 더 빛나는 경영자들의 지혜”를 요약재구성함

## □ ‘쿠거족’의 연애 혁명\*

- ‘쿠거(cougar) 혁명’이란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뜻하는 북미지역 신조어임
  - 쿠거는 북미에 서식하는 고양이과 동물로 먹잇감을 찾을 때까지 어슬렁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여기서 ‘쿠거족’이란 말이 나와 한때, 밤늦게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나이든 여성을 뜻하는 속어로 쓰임
  -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린 남자와 데이트하거나 결혼하는 여성을 의미
  - ‘쿠거 혁명’이란 개념은 2003년 미국은퇴자협회(AARP) 설문조사에서 40~69세 여성 중 34%가 연하의 남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했다고 응답한 데서 공론화됨
- 미국에서는 이혼 후 싱글이 된 30대 이상 여성들이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고, 대신 나이 어린 남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함 (왜냐하면 또래 남자들이 나이 어린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임)
  - 이혼이 본격화한 탓에 30, 40대의 싱글들이 전례없이 무더기로 데이트 시장에 뛰어든 게 쿠거족이 급격히 늘어날 배경임
  - 한국에서도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2·30대의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1쌍으로 늘어났고, 인기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커플이 비중있는 역할로 등장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쿠거 혁명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임
  -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선호하듯,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자들이 젊은 남자를 좋아함
  - 한 조사에서는 연상녀·연하남 커플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46.1%가 여성의 경제력에 끌린다고 응답
  - 어린 여자를 사귄수록 일정 받는 남자와 달리 연하남을 사귀는 여자는 간혹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쿠거>라는 책을 쓴 여성학자 발레리 김슨은 이를 나이 든 남성들의 자기 방어심리로 설명
  - 나이 지긋한 남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원하는 연령대 파트너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쿠거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자신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 중앙일보(2008.03.05), “쿠거족의 연애혁명” 기사를 요약 정리

□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떠는 미국\*

- (현상) 미국은 최근 경기 침체가 확인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은 1970년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
  - 2007년 4/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0.6%를 기록, 3/4분기 4% 후반에서 급락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1월 4.3%로 2007년 12월 대비 0.4% 상승함
- (원인) 부동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심화, 세계적인 오일플레이션(oilflation)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음
  - 부동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심화 : 지난 2007년 여름 부동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이 불거진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오일플레이션 : 지난 2월 26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100.88달러를 기록하는 등 오일플레이션(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미국 경기를 크게 위협하고 있음
  - 애그플레이션 : 시카고상품거래소의 5월 인도분 밀 가격은 부셸 당 12.14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이 미국 물가 상승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의미하는 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의미함
- (전망) 현재 미국 경제 상황으로는 금리 조절을 통한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악화 시나리오 또한 가능
  -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조치는 경기 침체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어 정책 딜레마에 부딪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이미 2007년 9월 이후 5.25%였던 연방기준금리를 3.0%로 2.25%로 인하한 경험이 있어 금리인하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 이 글은 『한경Business』(2008.03.1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창의적인 인재와 리더

2007년 3월, 롭 고프(Rob Goffee) 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 등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리더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고프 교수 등은 우선 조직 안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보이는 특징 일곱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첫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쉽게 이전될 수 없다.
- 둘째, 남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
- 셋째, 직위나 승진에 대한 관심이 낮다.
- 넷째, 기업 안에서 누구와도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
- 다섯째, 주변에 잘 발달된 지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 여섯째, 단순한 업무에 대한 인내력은 낮다.
- 일곱째, 종종 기존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고프 교수 등은 이들을 이끌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리더들에게 전통적인 보스의 모습을 버리고 자애로운 후견인의 모습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창의력 있는 직원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실험하고 탐닉하고 때로는 실패할 기회를 주며, 동시에 리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권위를 조용하게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리더에게 요구되는 보다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다.** 학교라는 고정된 틀에 답답함을 느껴 학업을 중단했던 에디슨,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단순한 학업 포기자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혜안이 없다면, 더 이상의 조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리더의 창의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한다.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 본 헤피 : 독일의 목사